

## 예 시 답 안 (사회계)

### <논제 I >

[가]~[매]는 삶의 질, 또는 행복의 조건이 노동에 있는지 여가에 있는지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가], [라]는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노동에 대한 소명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보는 반면에, [나], [다], [마]는 여가를 통해서 인간은 비로소 행복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가]는 노동의 신성함을 강조하면서 노동은 금욕의 수단이자 신이 정한 삶의 목적 자체라고 주장한다. [라]도 노동은 신이 인간에게 내린 축복이며 노동 없는 삶은 인간을 육체적·정신적인 불구로 만든다고 주장한다.

한편 [나]는 여가가 행복의 중요한 요소이며 경제적 요인만으로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 수 없다고 본다. [다]는 기계 발전과 함께 인간이 점점 더 노동에 예속되고 있음을 한탄한다. 기계와 경쟁하기 위해 인간은 더 많이 일해야 하면서도 더 가난해지는 모순을 겪고 있다. [마]는 인간이 노동의 강요를 극복하고 한가로운 삶을 살 때 비로소 자유로워지고 인간의 본질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 [497자]

## <논제 Ⅱ>

제시문 [바]는 일(노동)과 놀이(여가)가 대립적이지 않고 분리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보여주기 위해 인간의 원초적 정체성을 실현한 존재인 장인(匠人)을 제시한다. 장인은 일 자체에서 깊은 보람을 느끼며 일하는 사람이다. 이들이 하는 일은 놀이와 유사하다. 놀이도 놀이 자체에 집중하며 물건과 대화하며 물건을 다루는 법을 익힌다. 놀이를 통해 규칙을 지키고 규칙을 만들면서 복잡성을 높여간다. 성인의 일도 놀이의 성격을 갖는다.

이런 견해를 근거로 했을 때, 제시문 [가]~[다]는 일(노동)과 놀이(여가)를 대립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할 수 있다. 즉, 제시문 [가]는 노동을 금욕의 수단이나 신의 소명으로 이해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노동을 하는 이유는 인간의 원초적 정체성인 일을 통한 규칙의 발견에 있는 것이지, 금욕의 수단이거나 신의 명령이기 때문은 아니다.

한편 제시문 [나]는 행복의 요건으로 경제적 성취와 여가를 제시하면서, 노동보다는 여가를 즐기는 것이 삶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본다는 점에서 노동과 여가를 구분하고 있다. 제시문 [다]도 인간이 노동에 대해 맹목적인 열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계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노동에 점점 더 예속되고 있다고 한탄한다. 이 입장도 노동을 '예속, 억압'의 영역으로, 여가를 '자유'의 영역으로 구분하는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675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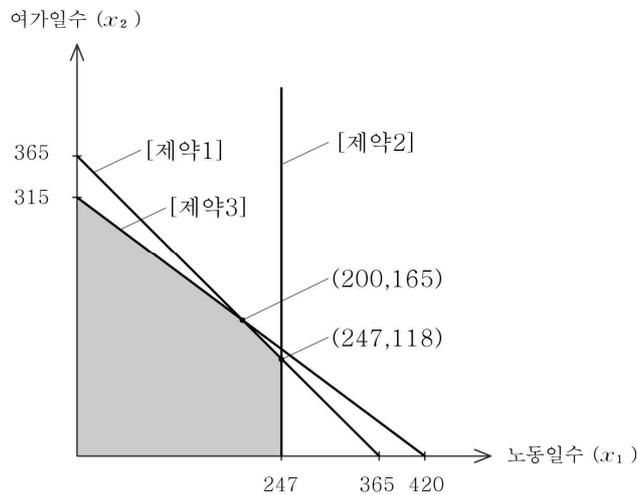
**<문제 Ⅲ>**

갑이 노동과 여가 중 어느 것을 더 중시하는지는 노동의 단위당 가치와 여가의 단위당 가치 중 어느 것이 더 큰지 비교하면 된다.  $x_1$ 을 연간 노동일수,  $x_2$ 를 연간 여가일수라고 하고, 하루 노동의 가치와 여가는 각각 10과  $V$ 라고 하자. 그러면 노동과 여가로 인한 연간 총 가치(TV)는  $TV = 10x_1 + Vx_2$ 이다.

[제약1]  $x_1 + x_2 \leq 365$

[제약2] 연간 최대 노동일수는 247일이므로  $x_1 \leq 247$ 이다.

[제약3] 지출에 대한 제약으로서  $1.5x_1 + 2x_2 \leq 630$ (단위 만원)이다. 그러면 다음 그림과 같은 부등식의 영역이 만들어진다.



$TV = 10x_1 + Vx_2$ , 즉  $x_2 = -\frac{10}{V}x_1 + \frac{TV}{V}$ 에서  $V > 0$ 여서 기울기가 음수여야 함을 고려할 때 최적해는 (247, 118), (200, 165), (0, 315)을 잇는 선분의 어느 점이 될 것이고, 이 범위 내에서 최댓값이 3,980이 되려면  $TV = 10x_1 + Vx_2 = 3980$ 과 각 점에서 최댓값이 되기 위한 기울기 범위를 고려할 때 (200, 165)이 유일하며 이때  $V = 12$ 이다. 따라서 갑에게 단위 시간 당 여가의 가치(12)는 노동의 가치(10)보다 더욱 크다. 이런 결과를 근거로 여가의 가치를 노동의 가치보다 더 중시하자는 제시문 [나]의 주장은 갑의 경우 타당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